

제임스 웹 망원경 (JWST)

드디어 얼마 전 우주로 보냈던 제임스 웹 (James Webb Space Telescope)이 전송한 사진을 보게 되었다. 미국의 대통령이 나와서 설명을 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었고 또한 중요한 놀라운 일이었다. 인간 역사상 처음 가장 멀리 있는 곳을 볼 수 있는 일이라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얻게 되었다.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던 하늘에 그렇게 많은 별들과 은하가 있는 것을 처음 보게 되었고 빛의 속도로 36,000년 떨어져 있는 곳의 광경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. 너무나 놀라워 도대체 어디를 보고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조차 다시 생각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. 참으로 아름다운 사진이었다.

하지만 그렇게 멀리 볼 수 있는 그 곳도 끝이 아니고 지금의 일이 아니라 빛의 속도로 36,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지금에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 정말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. 그 사진으로 궁금증이 풀어진 것이 아니라 더욱 깊은 고민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. 그렇게 멀리 보았지만 그곳도 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. 단지 답이라고 내 놓은 것이 그렇게 많은 은하들 중에 지구와 같은 곳이 하나도 없겠냐?는 가설이었고 그것을 찾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. 한마디로 놀라운 일이었지만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되었다.

우주는 얼마나 큰 것일까? 그 중 우리는 어떻게 숨을 쉬고 이곳에 있는 것일까? 인간은 짧은 수명을 다 한 후에 어디로 가는 것일까? 과연 우주로 띄운 망원경이 그 답을 풀어줄 수 있을까? 도저히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가서 알아 볼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보며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.

단지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 때에 그 답이 나오는 이야기이고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더욱 깨닫는다.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인간이 똑똑해 질수록 더욱 알아가게 하신 것이다.

이전에는 모든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더니 이제는 더 많은 것을 알고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고 믿게 하시는 것이다.

하나님은 “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”(시편 34편 8-9절)라고 하신다.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다.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을 주변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욱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신다.

제임스 웹과 같은 망원경을 더 많이 띄운다고 하여도 그 끝을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?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이다.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앞에 엎드릴 때에 인생의 모든 문제와 답을 얻게 된다.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다. 우리가 지나가는 어려움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삶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신다. 그 길 밖에 없기 때문이다.

아무튼 신기하다.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별들을 보니 천국이 더욱 궁금해 진다.